

# 잊혀진 '제한절'을 되찾으려면



강익현의 허허실실  
虛虛實實

前 싱가포르 대사관 공사  
국제정치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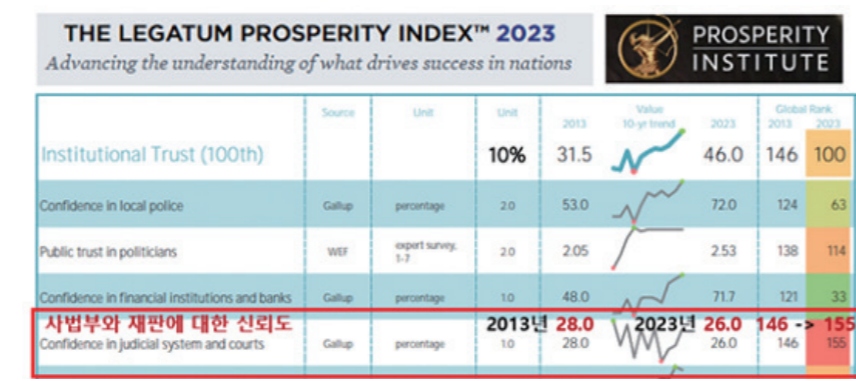
오늘이 제한절이다. 언제나 돌아오는 제한절은 공휴일의 꿈을 주지만, 이를 수 없는 공휴일 꿈은 슬프다. 작년에는 입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제한절 공휴일 제지정 법안을 올렸으나 무산되었다. 근거도 제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대동소이하다.

3·1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 제한절(7월17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의 5대 국경일 중 제한절만 공휴일이 아니다. 여론조사도 공휴일 지정에 긍정적이고 전직 국회의원들 모임인 헌정회 등은 후손들이 제한 정신을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글날이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06년 국경일로 승격, 2013년 공휴일로 재지정된 사례가 있으니 제한절도 공휴일이 못할 이유는 없다. 여론도 당장 하루 더 놀자는 데 왜 반대하겠나. 여론은 어버이날 다음으로 제한절 공휴일 지정에 찬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제한 정신 계승이다. 3·1절 등 여타 국경일은 직관적으로 와닿는다. 이에 비해 헌법을 접할 기회가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제한 정신은 추상성이 높아 아득하다. 2008년부터 제한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다 보니 30대 이하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얘기다.

올해도 여느 때처럼 제한절 아침에 태극기는 달았어도 평상시처럼 근무해야 한다. 내년부터라도 제한절 공휴일 제지정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의 2023년 번영지수 중 한국의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필자 제공

문제를 검토할 때는 왜 그래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또 기법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과거 노무현정부의 주5일제 시행에 대해 세계에서는 공휴일 축소를 요구했고 이에 이명박정부는 제한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이 논리를 뛰어넘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공휴일 지정 시 민간 소비 축진이 생산성 감소 효과를 넘어야 얘기가 된다. 그리고 공휴일 지정이 바람직하다면 7월17일 하루 노는 것과 주말과 연계, 7월 셋째 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주말과 연계할 때의 경제적 효과를 체크해야 한다. 연휴가 바람직하다면 멕시코처럼 하면 된다. 멕시코는 2월5일이 '헌법의 날'임에도 공휴일은 매년 2월 첫 월요일로 대체했다.

그리고 제한절 공휴일 지정 시 고려할 것이 무엇인지 정부와 국회, 법원 공히 국민에게 다가야 어필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10여 년 전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모교를 찾아 어린이들에게 헌법의 중요성을 강의한 사례를 인용할 수 있다.

황 장관은 강의 시 학생들에게 앞줄과 뒷줄 자리를 바꿔 앉을 것을 제안했고 우왕좌왕하며 착석하자 그다음 번에는 우측 통행을 지켜 가며 자리 바꿈을 제의했고 1분도 안 돼 착석이 완료되었을 때 '법

은 우측통행'과 같은 것으로 사회에 혼란이 없도록 해 주는 으뜸 규칙이 헌법'이라는 말로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한 사례가 있다. 거창한 세리머니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제한절날 국회의원들과 소위 범조3권이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인사들이 모두 국민 각계 각층에 다가야 우리 생활과 관련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의하는 등의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저변에는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mujeon yujwai... no money=guilt"라며 아예 우리 말 '무전죄'를 직접 옮겨 설명했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Legatum)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사법 시스템 신뢰도는 167개국 중 146위(2013년)에서 155위(2023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외국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뼈아픈 사례다.

우리 국회도 그렇고 정부와 사법부도 그렇고 잊혀진 제한절을 공휴일로 되찾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떠나없이 나서서 국민적 인식을 새로이 할 때다.

## 社說

# 한국판 '플럼북' 만들어 공공기관장 인사 소란 막자

공공기관(공기업) 개혁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은 '감시받지 않는 공룡'이 됐다. 천문학적 부채, 낙제 수준의 경영, 사내 복지 천국을 만든 도덕적 해이, 전문성 부족한 상당수 이사장(사장)과 이를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 감사' 등 공공기관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히고 나섰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밝혀졌다며 이들의 자진 사임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 임명한 '알박기' 인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사실 정권 교체 때마다 공공기관장 밀어내기는 관례화됐다. 정권을 잡은 측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고 검증된 인물들로 교체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실제로 전임 정부에서 별 능력 없는 인사들이 졸타기로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 주요 임원을 맡은 사례가 적지 않은 건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상당수 임원들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무회의에서 배제시킨 게 단적 사례다.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개제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거둬 위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이 위원장은 여당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이에 여론은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이 위원장은 임

기를 채우겠다는 계산 아래 국무회의 때마다 이 대통령에게 이것저것 요구해 '분위기 파악 못 하는 인사'로 희화화의 대상이 됐다.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안카드 유용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 같은 사례는 정권 교체기마다 비밀비재하다. 한때 대놓고 나가라고 했다가는 문재인정부 시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처럼 영여의 몸이 될 수도 있다. 김 장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 추천 인사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누구라도 '알박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하다. 여당은 '후안무치' '대선불복'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우리로 미국처럼 한국판 플럼북(Plum Book)이 필요하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가 주요 직위 명부록에 해당하는 미국 정부 정책 및 지원 직위 명부록을 발행한다. 책 표지 색상이 익은 자두(플럼) 색깔과 비슷해 플럼북으로 불린다. 상원의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와 하원의 감독개혁위원회가 4년마다 번갈아가며 발행한다. 이 책에는 연방정부 고위 공무원 이상부터 장차관급에 이르기까지 주요 직위가 모두 올라 있다. 대부분 주요 직책들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기에 논란이 거의 없다.

우리의 경우 공공기관을 집권 세력의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또 공직을 출세와 생계 수단 정도로 가볍게 보거나 심지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천박한 공직관도 바로 잡아야 한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특정 이념에 경도되지 않은 합리적 공직자상이 요청되고 있다.

# 인간 중심 철학 담긴 건축물



건축이야기

양웅기 안산대  
건축디자인과 교수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을 보면 때때로 의문이 든다.

근대 건축의 모토는 '탈(脫)과거'다. 고딕·바로크·로코코와 같은 전통 건축 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정신과 기술을 반영하려는 흐름이었다. 장식을 버리고 기능을 강조하며, 형태는 구조를 따르도록 했다.

그런데 가우디의 건축은 이런 흐름과 달리 여전히 고풍스럽고 장식적이다. 곡선이 많고, 생명체의 형태를 닮았으며, 종교적 상징도 가득하다. 근대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회귀가 아니다. 가우디는 중세 고딕 건축의 '정직한 구조'를 사랑했고, 그 구조를 20세기 초의 신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했다. 형태만 흉내 낸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진화시킨 것이다.

아르누보 양식의 곡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철과 콘크리트 같은 당시의 신소재를 실험했다. 그의 건축은 과거를 동경하거나 모방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정신을 현대적 언어로 다시 말한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그의 '순수한 의도'다. 그는 유행이나 경제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람과 신에 대한

경의심으로 건축을 했다. 그는 말했다. "건축가는 창조자가 아니라 자연의 제자일 뿐이다." 인간의 삶, 자연과의 조화, 종교적 신념이 그의 설계에 스며 있다. 이는 단지 조형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건축을 통해 사람의 '정신'을 감싸고자 했다.

우리에게도 그런 건축가가 있다. 김중업이다. 그는 한국 현대 건축의 선구자로 불린다. 프랑스 유학을 통해 르 꼬르뷔지에의 영향을 받았지만, 단순한 모방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한국적인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의 건축에는 분명한 태도와 절제가 있다. 형태는 단순하지만 의미는 깊고, 수직과 수평의 긴장은 도시의 풍경을 품는다. 그의 건축은 장엄하거나 위협적이지 않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김중업은 "건축은 건물이 아니라 사상이자 실천"이라 했다. 실제로 그의 건축은 시대와 타협하지 않았고, 대중과의 교감을 잃지 않았다. 형태에 앞서 철학을 생각하고, 재료에 앞서 사람을 고민했다. 그는 전문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전문가란 단지 기술이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다.

성숙한 건축가는 시대정신을 읽고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며 그것을 건축물에 담아낸다. 그 결과물은 시간이 지나도 힘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고, 후대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반면 권위주의나 부를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일부. 필자 제공

과시하려는 건축, 파시즘적 권력의 상징으로 지어진 건축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허약한 기반이 드러나고 만다.

진정한 건축은 규모에 있지 않다. 커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작아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진짜 건축은 철학이 담긴 건축이다. 작은 주택 한 채일지라도 사람을 이해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건축이다. 반대로 아무리 거대한 건축이라도 정치적 계산이나 과거 욕망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건축은 말이 없다. 그러나 훌륭한 건축은 침묵 속에서도 강한 울림을 준다. 사람을 위하고, 시간을 품고, 미래를 향하는 건축은 스스로 말한다. 우리는 그런 건축을 더 많이 만들고, 그런 건축가를 응원해야 한다. 전문가의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한 작업은 반드시 다음 시대에 희망의 징검다리다. 김중업과 가우디가 그랬듯이.

# 이광수 장편소설 '재생'의 사연



방민호의 오늘생각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  
문학평론가·시인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속을 돌아다니는 것은 이광수의 장편소설 '재생'이다. 소설 공부하는 참 어렵다. 집중해서 읽고 논문까지 쓴 작품도 시간이 흐르면 줄거리가 아득하다. 너무나 잘 알려진 '재생', 생명의 위기에서 다시 살길을 찾는 이 작품도, 그 계, 사건 전개가 어떻게 되었더라, 한다.

이광수의 '재생'은 일본 작가 오자키 코요(尾崎紅葉)의 소설 '금색야차(金色夜叉 こんじき야차)'로 이야기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더 올라가 서양 작품으로 갈 수도 있다.

'야차'는 악귀 같은 것을 뜻하는 인도 신화나 힌두교·불교에서 온 말로, '금색야차'는 황금, 곧 돈에 미친 악귀를 뜻한다.

이 '금색야차'는 '이수일과 심순애'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다. '이수일과 심순애'의 이야기, 즉 '장한몽(長恨夢)'은 일제 때 작가 조중환(趙重桓)이 '금색야차'를 변안해 쓴 것이다.

'변안'이란 원작이 있고, 이 원작의 이야기를 인물과 플롯은 이어받되 그것을 자기 나라 사정에 맞게 '적용'해서 다시 쓰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안'은 있다.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전용(轉用-appropriation)'의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그리하여, '장한몽'에 오면 '금색야차'의 '간이치'와 '미야'는 이수일과 심순애로 이름이 바뀐다. '도료'와 '아타미'를 오가는 이들의 사랑의 엇갈림도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것으로 바뀐다. 그러나 '도미야'의 다이아몬드 반지에 마음이 움직여 사랑을 배신하고 마는 여자의 캐릭터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탐내는 것으로 그대로 연결된다. 돈이 없으면 한이 맺혀 '복수'를 다짐하고 종적을 감춰 그리대금업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간이치'의 전락 또한 이수일의 것으로 연결된다.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되었던가. 물갈이 차가운 여자의 마음도 결국 회한에 이르고야 마는 것을.

이다음에 오는 것이 이광수의 '재생'이다. '재생'은 앞선 두 작품을 심본 고려하면서 이광수만의 특색을 지녔다. 3·1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 사랑하게 된 봉구와 순영. 가난한 봉구가 감옥에서 5년을 끄는 동안 일찍 세상을 떠나 순영은 마음이 변해 백운희라는 거부의 첩이 되고 만다. 이른바 당대의 유행, 여학생 첩이다.

감옥에서 나온 순진해 빠진 봉구는 순영의 배신에 치를 떠다. 앞의 두 작품에서처럼 종적을 감춰 인적으로 건너가 미두점에 취직한다. 돈을 벌여 복수를 하자는 심산인 점도 같다. 그러나 봉구에게 주어진 운명은 가혹하다. 그가 취직한 미두점의 주인은 독립군 자금 내주기를 거부하다 아들에게 살해당하고, 봉구가 그 누명을 쓰고 만다.

사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억울하게 재판에 회부된 봉구가 현명한 판사의 판결

로 누명을 벗고 풀려나는 장면을 보고 싶었다! 봉구는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누우친 순영의 도움으로 풀려나가는 한다. 그러나 심에서 봉구는 사형선고를 받는다. 진작에 읽고도 엉뚱하게 기대한 것과 달리 실제 작중에서는, 역시, 판사도 검사도 인정머리 하나 없는 이였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그런 일에는 너무도 익숙하여 양미간 하나 찌푸리지 아니하고 더욱 씩씩한 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해 버리고는 만일 이 판결에 불복하거든 5일 이내로 공소할 수가 있다. 하는 말을 남기고, 인제는 나 할 일은 다하였다. 이 피고들을 갖다가 죽이든지 징역을 지우든지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하는 듯이, 재판장이 먼저 나가고 그 뒤를 따라 다른 재판관들도 다른 데 또 바쁜 불일이 있다는 태도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 버린다. 오직 뚱뚱한 검사, 이였다. 하는 듯한 만족한 비웃음으로 피고와 방청인들을 한번 슬쩍 바라보고는 일부러 마루를 텅텅 울리고 나간다."

그랬었지. 봉구가 이 대목에서 죄도 안 짓고 사형선고를 받았었지. 검사는 물론 판사도 사태의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 판사가 나오는 이야기를 분명 어디서 읽은 듯도 하건만,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힌 사람이 죽음을 모면하고 자유를 찾는 소설, 말이다.

오늘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저녁에 큰 집회가 있다 했는데, 몸은 다른 곳으로 향한 채 마음만을 보낸다. 종일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이 제너다 다 되어서야 시원스럽지도 않은 '절금비'를 뿌린다.